

날짜: 5786년, 9월 19일 (2025년 12월 9일)

토라 롬: 거주하다

주제: 형제들의 정당화

창세기 37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 구절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즉,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야아곱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제사장의 흉파와 에봇에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의로운 인물들이 단순한 미움이나 질투로 동생을 죽이려 하거나 팔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일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믿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미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요셉에게 감옥에 갇힌 이후 형제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그의 마음의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고백은 요셉을 판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요셉이 애원할 때 무정하게 외면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엘로힘께서는 그들의 냉정함과 무자비함을 문제 삼으신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왜 요셉을 죽이거나 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일부 주석가들은 형제들이 실제로 *베이트 딘 (유대 법정)*을 열어 요셉의 죄에 대해 논의하고, 그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스포르노 (Sforno)는 형제들이 요셉을 *'로데프* (추격자)*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로데프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자를 뜻하며, 유대법에서는 그를 죽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탈무드 산헤드린 72a, 73a 참조). 요셉은 자주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말했고, 형제들은 그가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결점을 찾기 위해 왔거나, 죄를 짓게 유도하여 엘로힘의 징벌을 받게 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의 관점에서 요셉의 목표는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형제들은 요셉이 야아곱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렸고, 이즈하크은 에서를 배제했습니다. 형제들은 야아곱 또한 자신들을 배제하고 요셉만 선택할까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외모도 아버지 야아곱과 닮았고, 탈무드(소타 36b)에 따르면 요셉은 열 두 지파가 그에게서 나올 자격이 있을 만큼 여겨지는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이

A Daily Bread

בִּיא

자신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건설할 권리를 독점하려고 그들의 아버지 야아콥께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셀라 (Shlah, Torah Shebiksav, Tzon Yosef, Parashat Vayeishev)는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반역자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은 야후다 (유다)지파에 속하며, 다원 왕조가 그로부터 나올 예언을 예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록 속에서도 야후다는 이미 형제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 팔자고 제안했고,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야아콥을 설득했으며, 마지막에는 베냐민을 변호하며 형제들을 대표해 요셉 앞에 나섭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용해 야후다와 자신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보고, 이것을 야후다의 예정적인 왕권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반역의 행동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이에 반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판단력의 영향력안에서 상황의 전개를 그렇게 연결 짓고 각기 스스로를 설득을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에 따르면, 형제들은 요셉을 공정하게 판단했으며,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훗날 여호와 엘로him께서 자신들을 벌하고 계신다고 느꼈을 때조차, 그들은 요셉을 판 행동 자체보다는, 그가 울부짖었을 때 냉정하게 무시한 태도만을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했더라도, 형제들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린 것은 그들이 꾸중을 받아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야후다의 왕권을 빼앗으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훗날의 출애굽 사건도, 다원 왕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 엘로him에서는 그들의 행동 (비록 오판으로 인한 최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 해도 그 악의가 없었던 순진한 의도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사이의 계시”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민족의 땅에서 나그네가 될 운명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샬롬.